



[www.daewooenc.com](http://www.daewooenc.com)

# 대우이 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20 9 + 10



## 7 + 8월호 표지 이벤트 당선작

지난 7+8월호 스티커 이벤트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대곡소사복선전철3·4공구가 완공된 후의 모습을 스티커로 표현해 주셨네요.  
9+10월호 스티커를 색칠해 일록달록한 나만의 스티커로 표지를 꾸며 주세요.  
개성이 더해진 다양한 응모작을 기대하겠습니다.



### 표지 스티커 이벤트

동봉된 정대우 스티커를 표지에 자유롭게 붙여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보세요!  
스티커를 색칠하면 더욱 멋진 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10/31)



###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스티커 이벤트]**로 달아주는 텐스!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enc.com



DAEWOO E&C  
MAGAZINE  
2020 9 + 10



14



12



26



34

- |  |
|--|
| <b>2 THEME VIEW</b><br>뚜벅뚜벅 - 소신과 원칙<br>그리고 책임감으로 내딛는 발걸음                              |
| <b>4 THEME POLL</b><br>자유와 책임 사이   |
| <b>8 THEME TALK</b><br>책임지는 사람들, 어떻게 다를까?  |
| <b>12 THEME VISION</b><br>더불어 성장하는 법   |
| <b>14 현장STAR 그램</b><br>바닷속을 가로지르는 든든한 오일허브<br>울산 S-OIL #2 SPM PJ(현장)                   |
| <b>20 선배돌보기</b><br>토목사업본부 김형섭 본부장  |
| <b>24 정대우가 간다</b><br>- 정대우 이모티콘 시즌3<br>- 정대우 과장의 핵인싸 도전기<br>'나도 유튜브 스타'                |
| <b>28 정대우로드</b><br>아프리카 대륙의 겁 없는 성장,<br>나이지리아  |
| <b>33 WORK &amp; LIFE</b><br>자연 속으로  |
| <b>34 취미유발자들</b><br>Let's get it 날아라 슈퍼 보드   |
| <b>38 주말에 뭐하지</b><br>오르고, 매달리고, 뛰어!<br>빛나는 가을 아웃도어                                     |
| <b>42 내용 보고서</b><br>깊어가는 가을, 무르익는 우울?  |
| <b>44 대우건설인+</b><br>- 대우건설인 心-Care<br>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br>- 언택트 추석 보내기<br>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해요 |

- |  |
|--|
| <b>48 대우건설 뉴스</b><br>2020년 9+10월 대우건설 뉴스<br><b>52 독자후기</b> |
|--|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피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솔, 김동오  
 표지 일러스트 이시누  
 인쇄 금강인쇄

# 소신과 원칙

그리고

책임감으로  
내딛는  
발걸음

- ④ THEME POLL 자유와 책임 사이

- ⑧ THEME TALK 책임지는 사람들, 어떻게 다를까?

- ⑫ THEME VISION 더불어 성장하는 법

'사람 나이로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은 세월을 넘어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자주 짓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얼굴뿐만 아니라, 신발 속에 감추어진 발 역시 그렇습니다. 발은 그 모습을 통해 사람의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보여주고는 합니다. 발을 통해 세월이 담긴 그의 성격을, 자주 향하는 장소를 통해 그의 발걸음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지를 기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조선의 승려 서산대사는 <답설(踏雪)>이라는 시를 통해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힘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헛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발자국을 남겨 왔나요? 내가 딤는 발걸음이 주변 사람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라 부릅니다. 9+10월호에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생각하며 각자의 책임감을 곱씹어 복니다.

## 자유와 책임 사이

능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까지 얻게 하는 원동력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이 책임감은 대체 어떻게 키우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우건설인 100명에게 책임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 Q1

‘책임감’과 관련된 말 중 가장 공감 가는 것은?

모든 소유에는 임무가,  
모든 기회에는 책임이  
따른다.  
**39.6%**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추궁한다.  
**33.7%**

개인이 각자의 문 앞을  
청소하면 거리의  
온 구석이 청결해진다.  
**20.8%**

책임은 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여  
얻는 것이다.  
**5.9%**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대우건설인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이 말에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핵심이 담겨 있다.

모든 소유에는 임무가, 모든 기회에는 책임이 따른다.

### Q2

스스로 평가해보는 회사 내  
나의 책임감 정도는? (태도, 업무력, 인간관계 등)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가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려 한다  
**60.4%**

내가 바로 이 구역의  
책임감 에너자이저!  
**19.8%**

오직 내 밥값만큼,  
최소한의 1인분만 한다!  
**17.8%**

자유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싫어  
**2%**



회사 내 나의 책임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 이상이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려 한다’고 답했다.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일 없어?'라고 묻는 동료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된다. 누구나 책임감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가 되는 법, 오늘 당장 실행해보면 어떨까.

###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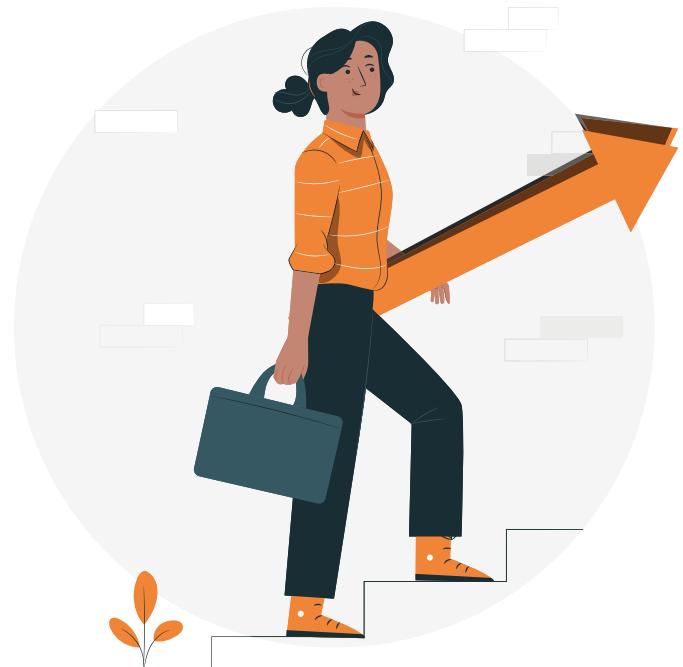
나는 책임감 이렇게 키웠다! 업무 책임감을  
높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잘하고 있다’는  
주변 사람의  
관심과 격려  
**36.6%**

귀감이 되는 선후배의  
솔선수범 행동  
**29.7%**

인생은 실전! 성공과  
실패를 통한 경험 쌓기  
**16.8%**

업무실적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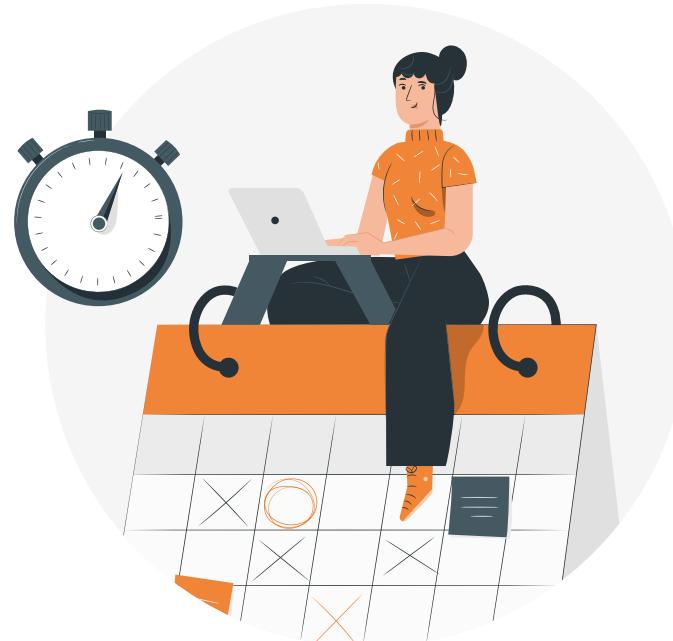


‘책임감을 높이는 데 가장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대우건설인의 답변이 의미심장하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주변 사람의 관심과 격려'부터, '귀감이 되는 선후배의  
솔선수범 행동', 비슷한 수치로 3, 4위를 차지한 '실전 경험',  
'업무실적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까지. 책임감을 높이는 데는  
동료와 회사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 Q4

책임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  |                     |
|--|---------------------|
| <b>스스로 원칙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습관</b><br><b>48.5%</b> | 주변의 믿음과 존중<br>32.7% |
| 업무 능력 증진<br>9.9%                               |                     |
| 일과 사생활 분리를 통한 집중력 극대화<br>8.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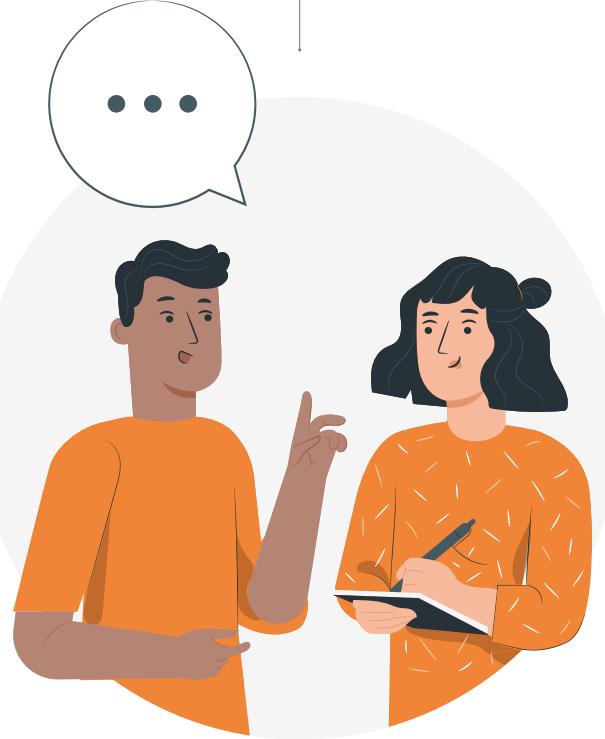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습관'이 48.5%로 1위를 차지했다. 업무는 물론 일상에서도 적용할만한 중요한 덕목이다. 8.9%로 4위를 기록한 '일과 사생활 분리를 통한 집중력 극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다.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나와 주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Q5

부하직원을 대하는 상사의 행동 중  
가장 책임감 있다고 느껴지는 모습은?

|  |   |
|--|---|
| <b>부하직원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상사</b><br><b>54.5%</b> |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더 성장할까? 부하직원의 발전을 고민하는 상사<br>20.8%   |
|  |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팀 분위기 조성에 힘 쓰는 상사<br>12.9%      |
|  | 나를 따르라!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방향을 제시하는 상사<br>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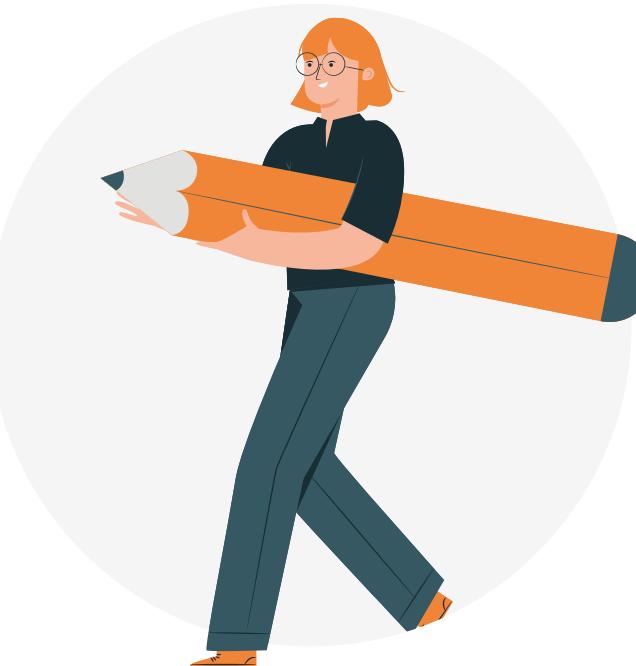


대우건설인들이 부하직원을 대하는 상사의 행동 중 가장 책임감 있다고 느끼는 모습은 무엇일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나(부하직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상사'라고 답했다. 이어서 부하직원의 발전을 고민하는 상사가 20.8%로 2위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업무 진행 및 성과에 꾸준히 피드백하는 상사', '업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주고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상사'가 있었다.

# Q6

'책임감이 강하다'고 느끼는 동료의 태도 중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은?

|  |                                      |
|--|--------------------------------------|
| <b>문제 원인을 동료나 회사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b><br><b>64.4%</b> |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동료를 도와주는 모습<br>12.9% |
|  |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br>12.9%      |
|  | 불리한 상황에서도 양심과 원리원칙을 지키는 모습<br>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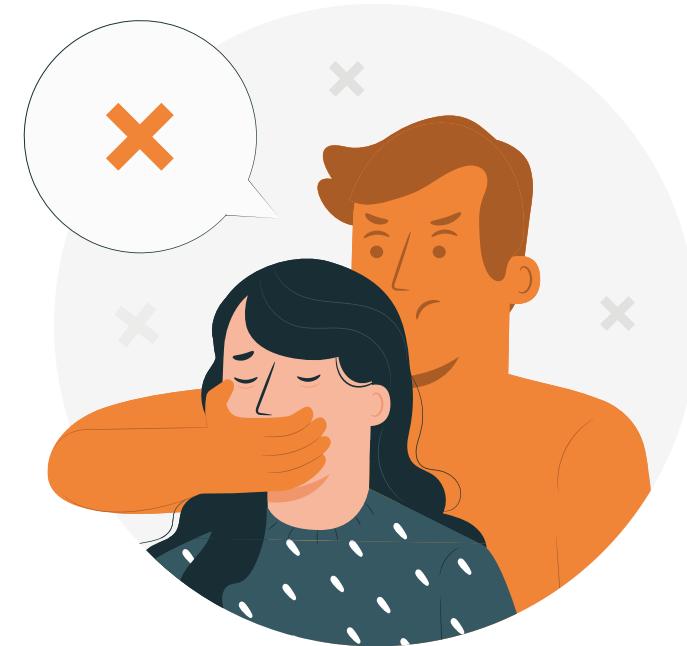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해나가는 체계를 '조직'이라 한다. 여럿이 함께 협동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감 강한 동료의 태도 중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을 묻는 질문에 '동료나 회사에 문제 원인을 돌리지 않고 해결에 집중하는 태도'가 64.4%로 1위를 차지했다. 남 탓은 언제나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 Q7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책임감 제로 빌런' 유형은?

|  |  |
|--|--|
| <b>남에게 교묘하게 책임 전가하는 '너때문이야형'</b><br><b>41.6%</b> | 밀만 번지르르하고 실제 업무는 모른 척하는 '뒤꽁무니형'<br>36.6% |
|  | 기분 따라 태도가 뒤바뀌는 '기분파형'<br>16.8%           |
|  | 무조건 칭찬만 하며 일을 떠미는 '엣다칭찬형'<br>3%          |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책임감 제로 빌런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너때문이야형'이 41.6%로 1위를 차지했다. 다시 한번 다짐해보자. 남 탓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뒤를 바짝 따라잡은 유형은 '뒤꽁무니형'이다. 책임감은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하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눈다면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보다 크게 성장할 것이다.



## 책임지는 사람들, 어떻게 다를까?

'젊은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식의 선배를 만난 후배는 오늘이 피곤하고,  
'아무것도 모르니 퇴근 할게요' 웃는 후배를 만난 선배는 내일이 막막하다.  
모두가 꿈꾸는, 책임감 가득한 팀워크를 위해 영화 속에 살아 숨 쉬는  
'최강 책임러'들을 만나본다.



Exit

66  
나 구름정원 부점장이야  
99  
정의주

### 자리와 역할에 주어진 소명감으로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 배우 조정석은 번번이 취업에 낙방해 좌절하는 용남을, 윤이는 연회장 구름정원의 부점장 의주 역할을 소화했다.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린 구름정원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도 잠시, 의문의 연기가 빌딩에서 피어오르며 위기에 처한다. 용남과 의주는 산악 동아리 시절에 쌓아 놓은 체력과 스킬을 동원해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시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 과정에서 의주는 먼저 살아남기 위해 기회를 노리거나, 누군가로부터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구름정원의 손님과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구조 기회를 양보한다. 그녀의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의주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구름정원 부점장'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았다.

회사의 조직원들에게는 각자 책임이 부여된다. 업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함께 나누거나 홀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다르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 조직은 한 번의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고 만다. 각자 지켜야 할 책임감을 잊지 않는다면 위기가 찾아와 앞이 깜깜할 때도 반드시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Spider Man

66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99  
피터 파커

내가 가진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진다면  
혹은 생각지도 못한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수많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도 2002년 개봉한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토비 맥가이어)가 평범한 학생에서 영웅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피터 파커는 유전자가 조작된 슈퍼거미에 물린 후 엄청난 힘을 갖게 된 뒤,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에게 복수하고, 짹사랑하는 메리 제인(캐스틴 던스트)에게 잘 보이려 초능력을 사용한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강도를 보고는 못 본 척한다. 강도를 상대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선택해버린 것이다. 그런 중, 그가 사랑하는 벤 아저씨가 남의 일이라며 모르는 척 눈 감았던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서야 피터 파커는 책임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벤 아저씨가 그에게 했던 말처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어떤 선택은 삶 전체를 흔들 만큼 거대하다. 나의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의 신뢰, 일상을 지키는 책임감.

그 무게는 항상 깊고 크다.



## Saving Private Ryan

66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99

제임스 라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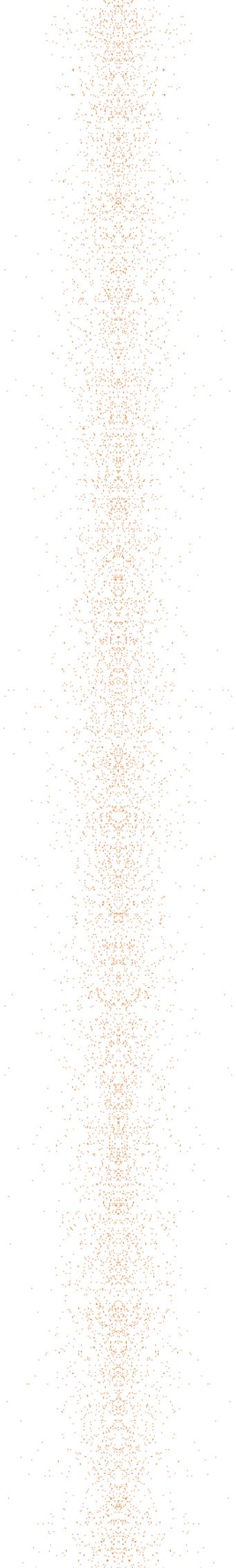
## Ode to My Father

66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하라

99

레너드 라루



## 책임감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일곱 가지 태도

1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지루하다’,  
‘재미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조직이 하나의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심사일반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책임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2

마감 기간이 임박한 팀 프로젝트나  
협력이 필요한 일정 중에 연차를 쓴다.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일부이니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말자.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  
동료들에게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매너다.

3

습관처럼 변명과 불평을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받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 것. 당장 위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변명과 불평이 계속되면  
결국 모두의 신뢰를 잃는다.

4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때는  
입에 발린 칭찬을 잔뜩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힘이 강하지만, 남발할  
경우 그 힘은 점차 약해진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진솔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5

귀찮은 일이나 성과가 크지 않은 일은  
일단 모른 척한다. 매번 내 입맛에 맞는  
업무만, 합이 잘 맞는 직원들과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가 설령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함께 책임지는 마음이  
보배다. 자꾸 뒤풀무니를 빼면 누가 한배에  
타고 싶겠는가.

6

미안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팀원이라면  
이심전심으로 고마움을 알아줄 것이라는  
착각도 금물이다.

7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다.  
윗자리에 오를수록 책임져야 할 일이  
늘어나는 법이다. 더 큰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응당 전체를 보는 시각과 그에  
맞는 업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부지런히 시야를 넓히고 배우도록 하자.

### 다른 사람의 희생과 노고를 생각하는 마음

개봉한 지 20년이 넘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2차 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전황, 전사자 통보 업무를  
처리하는 미 행정부 사무실에 타이핑 소리가 가득하다.  
그때 한 여성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그녀가 발견한  
사실을 보고한다. 제임스 라이언 일병(옛 테이먼)이 프랑스  
전선에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 밀러 대위(톰 헵크스)는  
6명의 대원과 함께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다시 전장에  
뛰어든다. 끝내 라이언을 구하고 전장에서 생을 마감한  
밀러 대위는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남긴다. 먼 훗날 가족과 함께 밀러 대위의  
무덤을 찾은 라이언은 말한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책임감이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밀러 대위의  
책임감은 라이언의 책임감 있는 삶으로 다시 피어났다.  
영화 속 책임감이 들통보이는 자는 라이언뿐만 아니다.  
전사자 통보 업무를 타이핑하던 그녀. 오타 없는 서류  
작성만을 본인이 맡은 책임감의 전부로 여겼다면  
라이언의 상황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 나 이외의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책임감이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준다.  
2014년 12월 개봉한 <국제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한 가슴 아픈 명장면이 펼쳐진다.  
한국전쟁 종이던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흥남항구를 통해  
해상 철수한 작전 ‘흥남철수’다. 작전의 결정권자였던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철수 선적에 피난민을 태울  
의무가 없음에도,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장군과 통역인  
현봉학의 설득으로 피난민 10만 명을 태우고 철수에  
성공한다. 특히 군수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화물선 메라디스 빅토리 호의 선장 레너드 라루는  
화물을 버려가며 1만 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까지 그들을 이송했다.

포위 상태에서 철수하는 군대가 외국 민간인  
10만 명을 구출한 예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으며,  
아비규환이나 다름없었던 선적에서 사망자 한 명 없이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그 결과까지 받아들일 각오로 피난민을 구조한 그들은  
영웅이다.

# 더불어 성장하는 법

동반성장 그리고 상생은 회사가 존속되는 동안 꾸준히 요구되는 화두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꼽히는 이 화두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조달기획팀을 만났다.



SHARED  
RED

조달기획팀  
조현명 과장



조달기획팀  
현상진 대리

**세계의 기업들이 동반성장 추진을 목표로 비전 수립을 다시 하고 있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 상생이 혁신 전략으로 대두된 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 차례의 경영위기 과정 속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경쟁사 대비 동반성장에 대한 외부평가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단, 지금의 경영진이 개선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대응방안 수립 및 실천이 중요한 때다.

## 작년부터 진행해 온 협력사 등록 시스템 개선 등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2019년에 진행했던 협력사 등록 시스템 개선, 협력사 미불관리 강화, 플랜트 조달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춘 상태다. 올해는 디테일을 강화해 수행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등록 시스템은 입찰제도와 연계한 협력사 T/O를 확정했고, 협력사 미불관리를 위해 도입한 '노무비닷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의 사용 실태 점검과 이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미 시행 중이던 플랜트 조달시스템에 알람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기에 도급실행 미반영과 수의계약 절차 개선, 업무방식의 변화를 꼬이며 조달본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협력사 부도 등의 리스크도 시스템 개선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하도급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조달본부는 업무단계별로 조치하고 있다. 먼저, 철저한 T/O제 운영과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협력사와의 등록을 추진해 부실업체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다음으로, 입찰단계에서 표준화도급계약서 및 표준현장설명서 제정 등을 통해 부당특약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 수행단계에서는 작업지시서 발부 의무화를 통해 서면미교부 위반 리스크를 막고, 모니터링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해 문제 협력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는 도급 미반영 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해달라.

도급(실행)미반영은 회사의 실적은 물론, 계약 변경 전 작업지시와도 관련 있다. 검토단계에서 조달본부를 추가해 실행미반영 금액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서면미교부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반영 사유를 유관팀에 공유해 도급미반영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의 작업지시서 발급 의무화로 서면미교부 발생건수를 대폭 낮춘 것이다. 서면미교부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작업지시서 발급률이 95.5%를 기록했다.

## 동반성장과 상생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너무 선제적 대응에 집중된 역할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2019년 1월에 도입된 노무비닷컴은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이용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다. 구축 당시, 담당자가 약 3주 가량 1천 개가 넘는 협력사를 등록하며, 현장 및 협력사, 그리고 노무자들과 수많은 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 땀 흘리시면서 고생하시는 노무자분들이 체불 없이 노임을 수령하는 성과를 얻었다. 수익이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상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보람찬 일이었다.

그렇다면 현장과 본사, 사람과 물자와 같은 인사이트 역량이 있어야 조달업무도 할 수 있을 듯하다.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 현재 조달본부에서도 조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동적인 조달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으로 조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 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해 좀 더 진취적인 직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꼭 2020년에 국한되는 목표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직 명칭 변경과 제도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또는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조달기획팀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수 협력사들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동반성장과 상생'을 완성하고, 회사가 영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싶다.

조달  
기획팀

‘동반성장과  
상생’을 완성  
하고, 회사가  
영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싶다.



조달기획팀  
최기호 과장



GROWTH  
GROWTH  
GROWTH  
GROWTH



바닷속을  
가로지르는  
든든한 오일허브

## 울산 S-OIL #2 SPM PJ



국내를 넘어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울산항의  
미래에 회사가 힘을 더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를 위해 묵묵히 도전의 역사를  
기록 중인 울산 S-OIL #2 SPM PJ(현장)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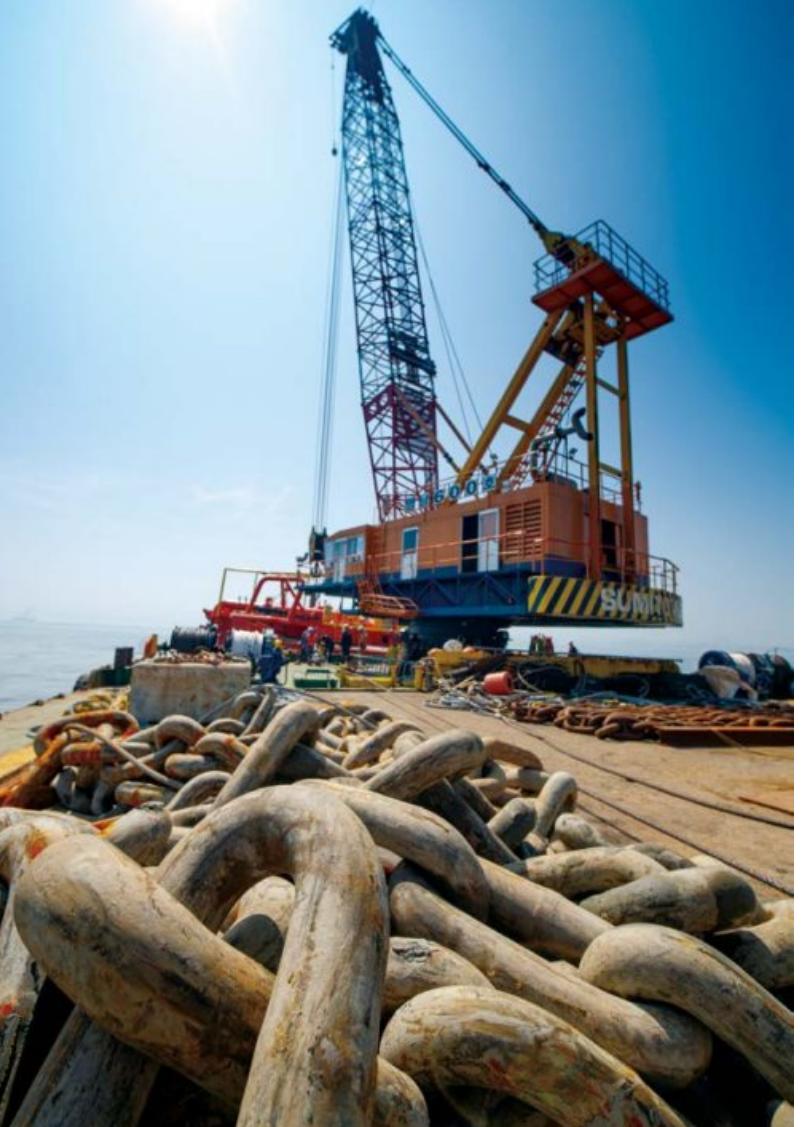
31 month  
사업 기간  
18.03 – 20.10

29,981 m<sup>3</sup>  
투입 필터석량  
139,703 m<sup>3</sup>  
투입 피복석량

육상배관  
3.0 km  
길이

해상배관  
3.7 km  
길이

약 34 m  
해저수심



대형 유류선의 원유하역을 드는  
부이를 신설하고, 이 원유를 육상저장  
탱크로 송출하기 위한 해저배관 및  
육상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S-OIL #2 SPM PJ 현장.



#### 세계 4대 오일허브를 향해

국내 최대의 원유수입 항만인 울산항. 해마다 급증하는 원유량으로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울산신항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 안벽, 방파제 및 배후단지 건립이 완성되면 울산항은 2021년을 기점으로 '新오일허브'라는 새 수식어를 얻게 된다.

"울산 온산국가 산업단지에 위치한 S-OIL #2 SPM PJ(현장)은, 낮은 수심 탓에 부두 접안이 어려운 32.5만 톤급 대형 유류선의 원유하역을 드는 부이신설(너비 16m, 높이 5.3m의 원통형)과 원유를 육상저장 탱크로 송출하기 위한 해저배관 3.7km, 육상배관 3km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외에서 실어 온 기름이 육상 저장고까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죠." 현장을 이끄는 소상식 소장의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 2018년, 같은 울산항에 2014년 준공한 원유하역시설의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동일 공정의 이번 현장을 수주했다. 그 때문일까. 당초 계약한 43개월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착공 29개월만인 현재 95%를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무팀의 김성현 과장은 "초기 인허가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사업 착수 시기가 많이 당겨진 덕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약 8개월 정도의 공기 단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김 과장의 말대로 현장에서는 해상 및 육상의 배관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해상에서는 맹거와 체인으로 원유 부이를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육상에서는 슬비의 작동을 위한 전기 계장 작업 등 마무리가 한창이다.



#### 누가 누가 더 어렵나, 바다 위 VS 육지 위

바다 한가운데 원유 하역시설을 만들고 바닷속에서 배관을 설치하는 만큼,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상 공사. 이 덕분에 직원들은 바다 냄새를 풀풀 풍기는 '뱃사람'이다 되어 있었다. 현장 직원들이 바다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날씨라는 장애물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여름이면 염분 가득한 습도와 싸우고, 겨울이면 매섭게 불어치는 해풍은 물론 속을 알 수 없는 해상 날씨와 파도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공사를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작년에는 유독 잦았던 태풍 소식에 현장에서는 '우리는 5분 대기조'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이니 말이다. "날씨가 어디 사람 뜻대로 되나요. '맑음' 일기예보를 보고 바지선을 출항시켜 작업 준비를 마쳤더니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 철수하기도 했어요. 작업 준비만 3시간이거든요, 준비하고 철수하려면 총 6시간이니 하루 공진 셈이죠." 공사를 총괄한 김선경 부장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젓는다.

어려운 해상공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심 34m 해저에서 진행하는 연결 작업이었다. 배관과 배관 그리고 배관과 PLEM(Pipe Line End Manifold) 두 곳을 육상에서 제작한 Spool Piece(단관)를 이용해 연결하는 작업이다. 잠수부가 해저에 들어가 수동으로 배관연결용 Flange의 Alignment를 맞추고 나사를 조여 배관을 연결하는 공정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엎어지기 일쑤이니 속된 말로 '나사 몇 개 조이는' 데만 총 4개월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육상공사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사 현장이 대규모 공업단지의 일부인 터라, 배관을 육지 향크까지 연결하기 위해 땅을 파고 보니 이미 다른 배관이 그 경로를 지나가는 경우가 일쑤였던 것. 이미 설치된 배관을 피해 경로를 고불고불하게 만드는 굴착공사가 이어졌다. 심지어 옮기는 비까지 많이 와 굴착한 사면이 놓고될 위험이 높아져 되메우기와 굴착의 무한 반복을 감내해야 했다.



배관을 육지 향크까지 연결하기 위한  
육상공사. 공업단지 내에 설치된  
다른 배관을 피해 구불구불한 형태로  
구축하기 위한 굴착공사가 이어졌다.





**현장 분위기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팀워크**

계속되는 난관에도 울산 S-OIL #2 SPM 현장 직원들이 이뤄낸 공기단축 끽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막내'로 통하는 김효빈 대리는 "저희 현장은 공사 여건상 근무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작업 구간 또한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직원들 간의 소통 단절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전체 회식을 하기보다는, 매번 다른 소그룹을 구성해 적은 인원끼리 자주 모이려 했습니다. 또 지역적 특성상 속소생활을 하는 직원이 많아, 쉽게 즐길만한 스포츠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며 방긋 웃어 보인다.

직원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는 작업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위험천만한 해상공사에서도 무재해를 기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매번 달라지는 해상 날씨로 인한 야간작업, 잠수 작업 등 까다로운 안전 관리 사항들이 있었지만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가치 아래 직원들과 작업자들이 하나 되어 성공적인 안전문화를 건설한 것이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오일허브로, 석유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게 될 울산 S-OIL #2 SPM 현장. 울산 신항에 우리의 작은 도약이 미래를 위한 커다란 발자취로 남길 바라본다.

PEOPLE



"Risk Management에 중점을 두어 선제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준공을 약 8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히 근무해준 직원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마지막 준공까지 화이팅!"

한영수 PM



"무재해 준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마무리 잘 해주시고, 타 현장에 갈지라도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당부합니다."

소상식 현장소장



♥ Q ☰  
#CM #해상배관팀 #안전팀 #나는\_바다인이다



Bookmark icon  
♥ Q ☰  
#육상배관팀 #전기계장팀 #조각\_파이프\_옆에서



♥ Q ☰  
#정대우도\_왔어요\_유튜브\_구독\_꼭



Bookmark icon  
♥ Q ☰  
#바다와\_육지를\_잇는 #울산의\_오일허브 #우리가\_만들었어요



♥ Q ☰  
#관리팀 #공무팀 #든든한\_원유탱크\_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점마우가 간다'  
울산 S-OIL #2 SPM  
현장편

# 부지런하게

신뢰를 쌓고  
경험을 나눌  
시간



## 토목사업본부 김형섭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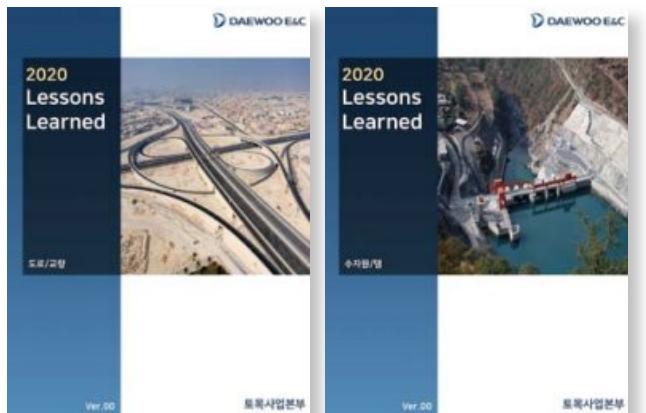
올해 초, 토목사업본부는 2020년을  
본부 실적 Turn around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아 15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전환점을 돌아 하반기를 건너고 있는  
지금, 토목사업본부 김형섭 본부장의  
생각을 공유해본다.

### 차근차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

코로나19의 여파와 이에 따른 유가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건설사  
역시 해외에서의 발주 축소 및 잠정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형섭 본부장이  
이끄는 토목사업본부는 싱가포르 주룽PJ, 홍콩 판링  
우회도로PJ 등 해외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발주처와 회사가 서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덕분  
이라고 생각해요. 수의사담으로 진행되던 이라크  
후속공사 역시 지속적인 제안과 협의 과정을 이어나가며  
신뢰를 쌓았고, 덕분에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본부장은 토목사업본부 직원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꽂을 피워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한다. 2020년 토목사업본부가 선정한 15대  
중점 추진 과제 역시 발주처와 신뢰를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PLC(Project Life Cycle) 단계별 해외 사업관리 시스템  
보완이다. 이를 통해 문제 상황 발생 시 본사의 현장  
지원을 즉각 수행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 현재  
모빌, 수행, 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진단 체계로 구축 완료해 신규  
PJ인 싱가포르 주룽 109 및 인도, 필리핀 현장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사업을 직영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실제 공사수행 계획과 연계된 작업조 개념을 도입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했다.





토목사업본부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의 PLC 전 단계별 실패 사례를 근간으로, 손실 재발방지의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해외 PJ LL사례집'을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내 PJ로 확장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간접경험이  
우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또박또박, 모두에게 전하는 경험의 지혜

해외 입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점차 축소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공공시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민자 SOC 사업을 발굴하고자 설계/교통 용역사 사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외주 기반의 국내 PJ에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현장 직영 수행을 계획하는 등이다.

또한, 해외 입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Day Simulation 및 공사수행계획보고 프로세스를 보완해 입찰 실행의 검증을 강화하는 데도 나서고 있다. 상품, 국가별 특성 및 사업 수행 형태 등을 고려해 표준조직안을 수립하고, 입찰과 수행의 간극을 최소화해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 본부장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다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채근한다. “개인의 경험 축적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토목 프로젝트의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간접경험이 우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토목사업본부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의 PLC 전 단계별 실패 사례를 근간으로, 손실 재발방지의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해외 PJ LL사례집'을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내 PJ로 확장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를 통해 본부 전 직원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선배돌보기

## 선배 탐구생활

### PROFILE

1960년 2월 10일생  
2018년 입사  
A형

### FAVORITE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덕 포인트'는?  
사람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하루 일과 중 내가 빼놓지 않는 것은?  
아침 6시 50분  
출근 직후의 커피 한 잔.  
그리고 그날의 일정 구상.



AM  
0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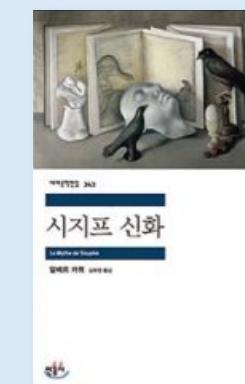
내 하루 컨디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로야구팀 NCC다이노스의 어제 경기 결과.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바둑! 현재는 아마추어 6단이다.

을지로 신사옥 이전 후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옛 추억이 떠오르는 오래된 골목길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골목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 잠겨보는 것.

### PRINCIPLE

그리며 행복한 시지지를  
위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한 문장은?  
'행복한 시지지를 그리며...'  
카뮈 <시지프 신화> 속 마지막 구절을  
잊을 수 없다.

### PRECIOUS THINGS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눈이 평평 내리는 날



회사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은?  
본부 직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할 때. 그 변화의 소소한 결과들을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내 인생의 은인을 한 명 꼽는다면?  
지금은 세상을 떠난,  
45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려 주었다.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ㅋㅋ 경쟁사 수주전략회의에 참석하기

과거를 거슬러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교사. 이 나이쯤이면 교장선생님?^^



# Limited Edition

## 정대우 이모티콘 시즌3

2018년 5월에 첫선을 보인 '정대우 리미티드 에디션 이모티콘'이 임직원의 열렬한 사랑 속에 시즌3를 맞이했다. 기존에 선보였던 3D 대신 실제로 촬영해 사실감을 높인 정대우 이모티콘. 더욱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정대우를 만나보자.

#다시\_새롭게\_돌아온

#저세상\_귀여움



정대우 리미티드 에디션 시즌3  
이모티콘 출시 기념 정대우 이모티콘  
받아 가세요!

### 참여 방법

jungdaewoo@daewooenc.com

(정대우메일)로 이모티콘 쿠폰 수령할

휴대폰 번호 송부

(참여자 1명당 1개 번호만 가능, 선착순 50명에 한함)

### 참여 기간

9월 21일(월)~9월 30일(수)

### 사용 방법

- ① 매일에 적어주신 휴대폰 번호로 선착순 50명에게 쿠폰 번호를 보내드립니다
- ② 안내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 페이지에서 쿠폰을 등록하세요 (등록 후 90일 동안 사용 가능, 쿠폰 등록 기간: -11월 16일(월))
- ③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귀여운 정대우 이모티콘을 사용해보세요

얼굴을 직접 마주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대신 모바일 소통이 더욱 익숙해진 요즘, 연령에 관계없이 이모티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말과 글로 소통하던 시대를 넘어 이모티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교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회사도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기업PR활동과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대우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즌3를 제작했다. 이번 시즌3 이모티콘은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기존 작업과는 달리, 정장과 현장복을 입은 정대우가 직장인의 희로애락을 대변하며 직접 열연을 펼친 덕에 자연스러운 멋이 배가 됐다.

시즌3의 또 다른 특징은 한층 친근해진 정대우 과장의 모습이다. 기존의 이모티콘이 점잖고 예의 바른 정대우의 특성을 살린 것이라면, 이번 시즌3에서는 직장인이라면 공감할만한 소재를 적극 적용하여 이모티콘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여기에 건설업의 특성을 더한 병맛 코드 또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제작된 움직이는 스티커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다운로드 후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대우건설 직원을 포함해 가족, 지인들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을가을에는 대우건설인의 희로애락을 담은 정대우 이모티콘을 활용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보시길.

## #PROFILE

정대우 / 과장  
건설사 최초의 캐릭터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젊은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함. 취미는 지인들과의 맛집 탐방.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직하고 절의로운 성격.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해결사 기질이 있음.



회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함. 하지만 회사 밖을 나서면 흥 넘치고 끼 많은 이 시대의 평범한 직장인!



생동감 넘치는  
정대우 이모티콘  
촬영 현장 속으로!



꿈꾸어라! 이루어질지어다!

## 정대우 과장의 핵인싸 도전기

### '나도 유튜브 스타'



회사의 대표 캐릭터 정대우 과장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유튜브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새로운 정 과장의 모습은 지난 8월 10일 오픈한 유튜브 '정대우가 간다'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 정대우가 간다

2,364,532 views

40K 10K SHARE SAVE ...



정대우 과장 / 대우건설 커뮤니케이션팀 소속

SUBSCRIBE



#대화좋아 #소통해요 #구독 #좋아요

#스마트하지만 #끼과홍도많지 #걸스속끼

#열점맨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로운 성격

#을지로4가역  
#지하철역사\_와이드광고  
#회사에서30초  
#을지트원타워  
#핫스팟  
#광고\_내리기\_전에  
#빨리\_오세요



을지로  
4가역

10

정대우 과장이 '정대우가 간다' 채널을 통해 여러 미션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 과장이 해결했으면 하는 미션을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더욱 재미있고 더욱 풍성한 영상으로 재탄생됩니다. 소재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정대우 굿즈'를 드립니다.

제보 이메일: jungdaewoo@daewooenc.com



미션! 유튜브 스타가 되라!  
어느 날 찾아온 의문의 그림자!  
#정대우가간다 #미션챌린지 #유튜브스타



정대우 과장 매력 제대로 폭발!  
대우건설 이모티콘 촬영 현장  
#정대우가간다 #이모티콘 #대우건설



콜콜하고 있는 옷 싹싹~리 할 콜한  
옷 나눔 캠페인 일일 체험!  
#콜한옷나눔캠페인 #대우건설



폭염 속 현장을 가다!  
(feat. 먹어는 봤는가 정대우바!)  
#정대우가간다 #정대우바 #뜨거운여름

아프리카 대륙의  
겁 없는 성장,

나이지리아

N I G E R I A



#### 나이지리아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나이지리아 NLNG T7 ONSHORE PJ 현장에서 소식 전합니다.

저희 현장은 라고스, 보니, 밀라노 이렇게 총 3곳의 거점 오피스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밀라노에서는 Offshore 설계 및 구매, 라고스는 Onshore 설계 및 구매, 보니에서는 시공 및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 라고스 사무실과 밀라노 사무실, 두 곳만 개설된 상태로 이번에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사무실의 소식을 들려드릴까요. 대단한 소식은 없지만 온 세계의 관심사인 코로나 방역에 얹힌 저희의 입국기(?)를 전해드릴게요.

조금은 점점 해질 것 같은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린다죠? 여기 나이지리아도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조치와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희가 나이지리아에 입국할 당시 나이지리아 국제공항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임시특별편 비행기로 입국했는데요, 평소의 입국절차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행동지침을 안내 받았고, 공항 직원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 최소 유지거리를 준수하며 이동했습니다. 또 출발국의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지참 및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손 소독제와 체온계, 마스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입국 후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예약증까지 나누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더욱 철저한 대비에 사실 많이 놀랐답니다.

길고 긴 비행시간과 입국 절차, 비자발급으로 공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 탓일까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먹었던 한국 라면의 맛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이지리아 생활 중 베스트로 꼽힙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구 반대편에서 맛보는 한국의 맛은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 많은 직원들이 그날의 라면 맛을 아직 회상한답니다. 몇 개월 동안 꿰 익숙해진 나이지리아 생활이지만, 다들 벌써 한국과 다른 동료들이 그리운가 봅니다.^^

# FROM NIGERIA



## 나이지리아 NLNG T7 ONSHORE PJ현장

나이지리아 NLNG Train 7은 연간 약 8백만 톤 규모의 LNG 생산 플랜트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aipem 및 Chiyoda와 JV를 구성해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천으로 수행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이 예상되고 있어, 발주처와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기존 5개 호기(1, 2, 3, 5, 6)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이번 7호기 또한 보니섬 특유의 지역 환경 및 커뮤니티 관리능력,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착공 후 66개월 내 성공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LNG T7 ONSHORE PJ 현장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는 이번 신규 LNG T7 구축을 통해 연간 가스 생산량을 2,200만t에서 3,000만t으로 약 35% 증가시킬 계획이다.



NIGERIA T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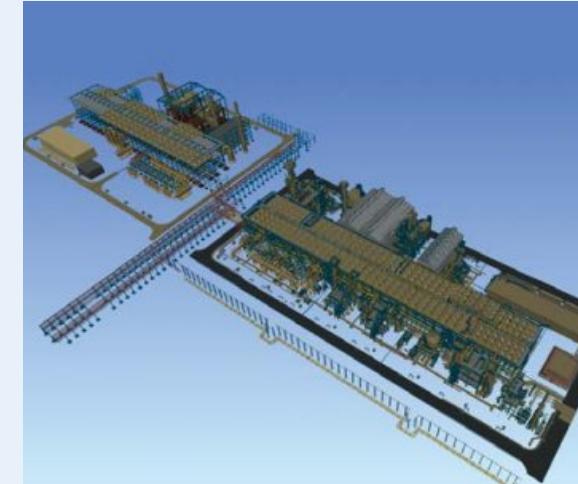
생각보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 한국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을 다음 날이면 볼 수 있다. 이 편지를 띄우는 8월 말에는 라고스 직원들이 '싹쓰리' 암이 중이었다고.



라고스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어 웬만한 물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단, 살인적인 물가로 대부분의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므로 여러 상점을 방문해 꼭 가격을 비교해볼 것.



나이지리아 국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다. 마스크는 물론, 투명 페이스 가드를 착용하기도 한다. 모든 상점 역시 출입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7년 발표한 GDP 순위에서 나이지리아는 세계 23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나 폴란드 같은 유럽의 중견국가를 넘어서는 수치다.



LAGOS

## 바다를 잇는 거대한 다리와 도시에 선 빌딩 숲

1950년대 29만 명 정도가 사는 소도시에 불과했던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이 항구도시는 2020년 현재 인구 2,100만 명의 초거대도시로 자라났다. 농업, 제조, 건설, IT 등 다양한 산업군이 발전 속도를 높이며 나이지리아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나이지리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95달러로 세계 138위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부를 가능할 수 있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계은행이 2017년 발표한 GDP 순위에서 나이지리아는 세계 23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나 폴란드 같은 유럽의 중견국가를 넘어서는 수치로,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되는 경제활동의 총량이 노르웨이나 폴란드보다 더 크다는 걸 의미한다. 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등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도 웬만한 중위권 국가를 상회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나이지리아의 미래 전망이다. 2017년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코퍼스(PwC)가 발표한 '2050 세계경제 장기전망 보고서'는 기존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간의 거대한 위치 변화를 예상했다. OI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계경제순위 22위에 머물렀던 나이지리아는 2050년에는 14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2016년 세계경제순위 13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은 18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난한 나라'로 여겨지던 나이지리아가 가까운 미래에 한국보다 더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NOLLYWOOD

## '날리우드'로 재탄생하는 아프리카의 정체성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앞장설 뿐 아니라 문화 산업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찍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월레 소인카를 비롯해 치누아 아체베 등의 소설가를 배출하며 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나이지리아는 20세기 후반부터 영화 산업에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한 해에 나이지리아에서 제작되는 영화 편수만도 1,000편이 넘는다. 이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을 일컫는 '날리우드'다.

날리우드 영화의 특징은 제작 단기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영화에 관심 있는 동네 청년 몇몇이 모여 휴비디오 카메라 한 대로 촬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제작의 전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제작비는 보통 미화 2만 달러에서 13만 달러 사이다. 촬영, 편집, 마케팅까지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다 보니 다른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와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의 작품도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리우드 영화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독특한 시선과 정서는 다른 나라의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나 인종우월주의가 담기지 않은 아프리카의 생생한 정서와 문화가 영상으로 표현된 것이 날리우드의 매력이다.

동네 청년들이 모여 장난처럼 시작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이제 백 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키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2014년에는 나이지리아 GDP 5%가 넘는 51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국제 영화제에 참가할 정도로 수준 있는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서 날리우드의 유망한 감독과 작품에 투자하여 세계적으로 배급을 진행하기도 한다.

나

이지리아에서 제작된 영화

<Up north>(2018), <Lion heart>(2019)

등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WRITER

### 송태진

대학 졸업 후 아프리카 캐나 현지 TV방송국 GBS에 입사해 제작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프리카 현지 방송국에서 근무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아프리카, 즐으니까>를 썼다. 유튜브 채널 '송태의 진짜 아프리카'를 운영하며 잘못 알려진 아프리카의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원동력, 나이지리아

진흙탕 길이 깨끗하게 포장되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며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고 있는 나이지리아. 두려움 없이 성큼성큼 나아가는 나이지리아의 겁 없는 도약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극하여 덩달아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TV 모금 광고에 등장하는 난민으로 여기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한다. 그들에게 아프리카는 이미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누구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아프리카 대륙의 기계소비가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의 기업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한 아프리카라는 오래된 틀에서 눈을 돌려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아프리카를 주목해보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는 얼마나 익살맞은지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가 알던 고정관념 속 아프리카보다 훨씬 재미있고 멋진 아프리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뜨겁던 햇빛은 따뜻해지고, 하늘은 더욱 푸르러지고,

곳곳에는 형형색색 색동옷을 입는 가을

이번 9+10월에는 새 계절을 맞아 롱보드, 등산,

트레일러닝 등 산과 들에서 이 계절을 즐기는

아웃도어 방법을 공유해본다.

자연 속으로

# 슈퍼 보드

석유화학사업팀의 선우배 김영준 대리와

김채미 사원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롱보드 체험에 나섰다.  
가늘고 긴 널빤지에 바퀴를 달아 달리는 이 작은 놀이기구를 타고,  
기분 좋은 가을바람 사이를 가로질러 본다.



석유화학사업팀  
김영준 대리

# 날아라



## 서퍼들이 만들어낸

### 길거리 스포츠, 보드

서울의 뚝섬유원지, 여의도한강공원 혹은 동네 구석구석의 공원 그 어디든. 경쾌하게 '도로록'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다면 그 주인공은 십중팔구 '보드'다. 196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시작된 보드는, 서핑에 죽고 못 사는 서퍼들이 손에서 탄생했다. 파도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서핑과 비슷한 것을 찾다가 서핑보드에 바퀴를 달기 시작했고, 그것이 최초의 보드가 된 것. 국내에는 70년대 유학생들에 의해 처음 소개됐다. 길거리를 대표하는 '스트리트 스포츠' 혹은 반항과 젊음의 이미지로 자리 잡으며 보드만의 독자적 문화도 생겨났다. 그 덕에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노래에 맞춰 춤추듯 스텝을 밟는 '댄싱', 경사진 비탈에서 속도를 내며 경치를 즐기는 '다운힐', 공중에서 각종 회전 기술을 선보이는 '트릭' 등이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에서 스케이트보드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만큼 보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또한 뜨겁다.

같은 생김새로는 즐거움에도 한계가 있는 법. 보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무게가 가볍고 높이가 낮아 묘기 부리기에 좋은 '스케이트보드', 양손에 쓰 들어오는 아름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크루저보드', 길이가 넓고 테크가 넓어 주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롱보드'다.





**LET'SSSSS FLY! SUPERBOARD LET'SSSSS FLY**

#### '보드 타고 출근'을 위한 기본 스텝

평소 운동을 하며 여유시간을 보낸다는 석유화학사업팀의 두 직원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롱보드 강습 체험에 나섰다. 선후배 사이이자, 죽이 잘 맞는 막내들로 불리는 16사번 김영준 대리와 19사번 김채미 사원이다.

“오늘 잘 배워서 보드로 출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영준 대리님의 관절이 걱정이긴 한데... 아, 장난이고요(웃음), 전 예전에 스케이트보드 잠깐 배운 적이 있긴 해요. 야외활동이나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요. 김 대리님도 운동 좋아하시죠?”

팀의 유일한 사원이자 막내로, 석유화학 사업팀의 에너지원을 지쳐하고 있다는 김채미 사원이 “영준 대리님도 워낙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역시 저랑 같은 ENFP”라며 웃어 보인다. 농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골프 등 구기종목을 즐긴다는 김영준 대리도 김 사원의 말처럼 꽤나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고. 오늘 강사로 나선 롱보드 강사 유지가 ‘기본 자세와 중심 잡기만 잘한다면 무리 없이 탈 수 있다’며 기운을 북돋운다.

오른발 또는 왼발을 보드 앞쪽에 두고, 나머지 발로 힘껏 ‘키킹’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드의 기본 스텝. 양발을 보드 위에

올릴 때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무릎을 굽혀 중심을 잡는 것이 포인트다. 체중을 뒤로 빼면 넘어질 수 있으니, 앞 발에 힘을 주어 무게중심을 앞에 두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키킹 한 번이면 10m를 주욱 질주할 수 있다. 다른 보드에 비해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롱보드만의 매력이라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가 짧을수록 텐이 빨리지고 회전 반경이 좁아져 주행이 훈들리는데, 롱보드는 이 바퀴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편이다. 방향 전환도 어렵지 않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

오르막을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만, 평지 위주의 출퇴근 정도는 거뜬하다는 것이 강사 유지의 설명이다.

두 사람은 조금 아슬아슬하게 보드 위에서 버티는가 싶더니, 곧잘 균형을 잡고 나아간다. 평소 운동신경을 잘 갖고 닦은 덕인지 속도를 높여도 금세 적응한다. 김영준 대리는 “나는 일산에 살아서 출근하는 건 어렵겠는데. 출근은 채미 혼자(웃음)”라며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둔다. 구불구불한 산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다운힐’이나 경쾌한 음악에 신나게 춤출 수 있는 ‘댄싱’ 스킬에도 관심이 있다고.



#### 즐겁고 활기차게, 정답고 유쾌하게

“중심만 잘 잡을 줄 알면 어렵지 않죠? 롱보드는 생활체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스킬을 배우거나, 꾸준히 보드를 타고 싶다면 지역 기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한강시민공원을 거점으로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워낙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이다 보니,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강사 유지가 보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어 설명했다. 라이딩 위주로만 사용할 경우, 충분히 반영구로 쓸 수 있다는 것.

롱보드는 얇은 나무를 겹겹이 쌓아 만든 형태이기에 직접 탄성을 느껴보며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 직접 손으로 깎은 수제품이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도 많아 개성을 표현하기에도 인성맞춤이라는 것. 문화가 다양한 만큼, 보드를 배우는 방법에는 유튜브, 동호회 등 다양하다는 것.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주는 보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운동을 하기 어려운 요즘, 후배와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면 김영준 사원도, 유쾌한 선배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는 김채미 사원도 좀 더 활기찬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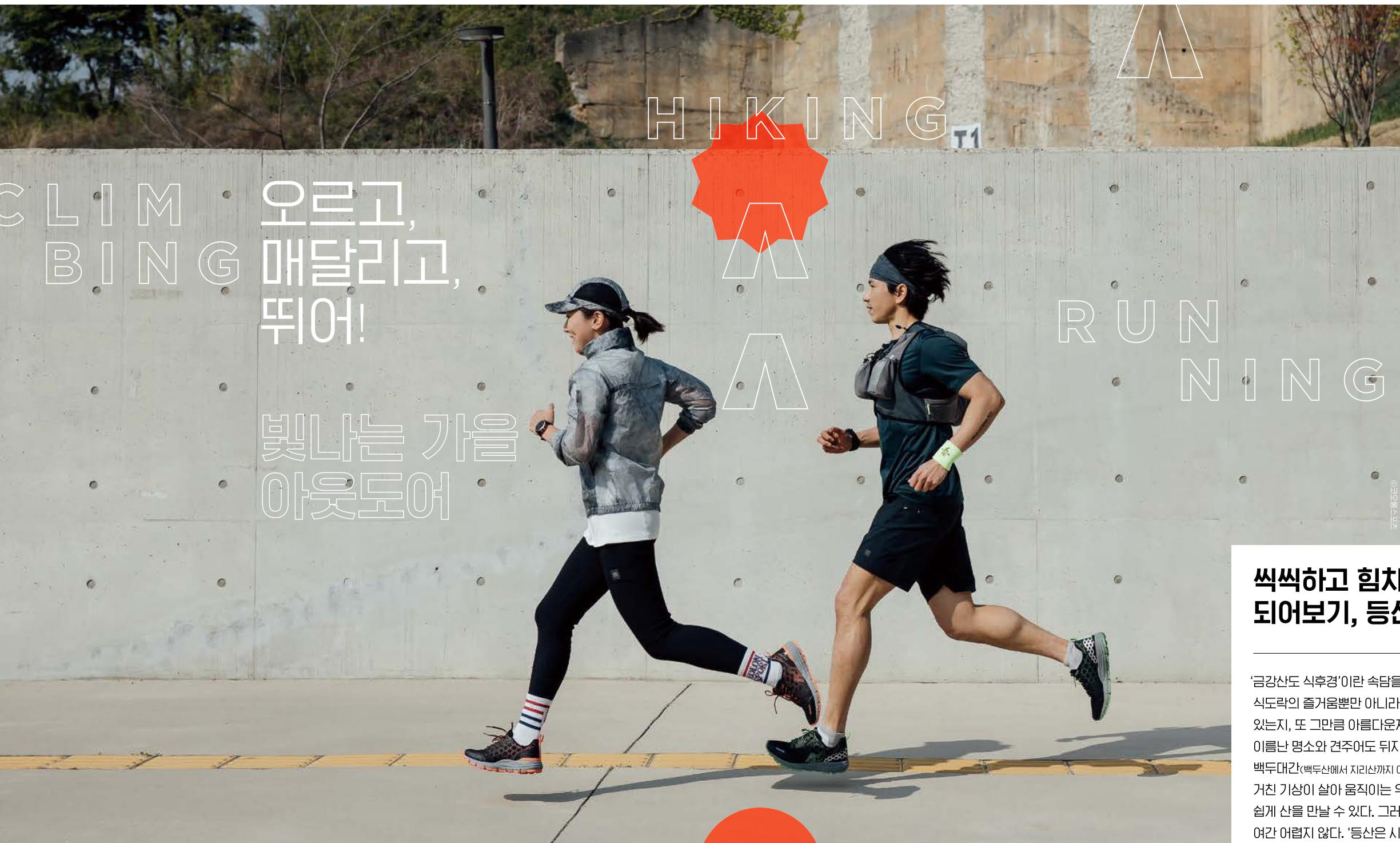
#### info.

롱보드 유저(@uz\_seok)

—  
원데이 클래스,  
프리스타일 전문 과정 등  
개인 강습 진행

—  
2019 ‘롱보드 코리아’ 심사위원  
2018 유럽 SYCLD 스폰서부  
파이널 진출  
2017 Longboard Korea Festival 우승





## 빛나는 가을 아웃도어

야외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젊은 세대의 변화를 주목해보자.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힘차게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강 아웃도어들이이다.

### HIKING

오르고,  
매달리고,  
뛰어!

빛나는 가을  
아웃도어



### RUNNING



MUST  
HAVE  
ITEM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등산 코스라면 워킹화로도 산을 오르는 데 문제없다. 단, 둘이 많은 산이라면 등산화를 챙기는 것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 이밖에 500ml 생수, 초콜릿은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필수 에너지원이 되니 코스에 무관하게 꼭챙겨갈 것.

▲▲LEVEL UP

©한국관광공사



## 씩씩하고 힘차게 '산린이' 되어보기, 등산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도락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산이 있는지, 또 그만큼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다. 세계 곳곳의 이름난 명소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절경의 명산들. 백두대간(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의 거친 기상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든, 섬에서도 쉽게 산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등산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유다. 그런데 웬걸, 요즘 동네 뒷산에 출몰하는 '산린이'들을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단체로 맞춘 듯한 형형색색의 등산복 대신 산린이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개성을 택한다. 쇼츠 팬츠가 멋대어 있거나 컬러풀한 색감으로 개성을 뽐내는 레깅스는 편하게 내 몸을 감싸면서도 기능적이다. 20~30대 등산객이 늘면서 이들을 공략한 합리적인 가격의 패션 아이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만약 등산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는 것이 등기부여에 좋다. 처음 한 달은 가벼운 산책, 이후에는 중간지점, 나아가 정상. 이번 주말은 홀로 인왕산, 다음 주말은 친구와 북한산을 오르는 식이다. 산린이에서 산어른이 되는 그날까지 차례로 체력과 산행력을 길러보자.

### 혼산, 둘산도 좋은 등산 코스

담양군, 화순군을 비롯해 절반 이상이 광주 북구에 걸쳐진 무등산은 2013년 국립공원 21호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약 75.425km<sup>2</sup>에 달한다. 장불재에서 서석대를 오르는 30분 구간은 경사가 완만하고 주변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재 데크가 설치되어 산행이 낯선 초보자도 편히 오를 수 있다. 무등산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자원이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제465호)인 입석대와 서석대를 만날 수 있고, 광주 시가지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무등산은 등산로 외에 의병길, 무돌길, 옛길 등 테마별 탐방로로도 잘 닦여있어 취향에 따라 쉬엄쉬엄 걷기에도 좋다.



## 너도 매달려보면 알게 될 거야, 클라이밍

지난 4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에서 발간한 <2019 IFSC 연간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클라이머 수를 약 4,450만 명으로 추산했다. 실내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과 자연암벽 등반가를 합한 것으로, 일반 위킹 등산 인구는 제외한 수치다. 스포츠 클라이밍(이하 클라이밍)은 산악 등지의 암벽 등반 대신 인공 시설물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 1988년 처음 도입된 후 클라이밍을 즐기는 국내 인구가 벌써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도 앱을 통해 클라이밍을 검색하면 당장 찾아가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장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클라이밍은 몸과 두뇌를 모두 필요로 하는 신선하고 유쾌한 게임이다. 멀리서 보면 눈앞의 훌드(손과 발을 디디는 인공 바위)를 차례대로 밟아 목표 높이에 도달하는 스포츠로 보이지만 루트 파인딩 즉,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 어떤 훌드를 잡고 나아갈지 고민한 뒤 힘의 안배, 예상 시간 등을 고려하여 움직여야 비로소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덕분에 전문직업인으로서 재치 있는 루트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루트세터(route setter)의 역할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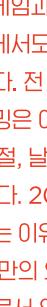
MUST HAVE ITEM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써야 하기 때문에 옷은 지나치게 크거나 조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암벽화는 필수품이다. 레이스업, 벨크로, 슬립온 등 발을 조이는 형태와, 뉴트럴, 모더레이트, 어그레시브 등 일정의 모양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대부분 센터에서 암벽화를 대여해주니 나에게 적합한 암벽화를 탐색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LEVEL UP



### LEVEL UP



**퇴근 후 클라이밍 한 판?**  
클라이밍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내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공식 스포츠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클라이밍은 아예는 물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어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20~30대 직장인들에게 크게 각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나 혼자만의 의지와 전신의 힘을 요하는 스포츠로서 엄청난 성취 욕구를 자극한다.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쉽게 찾이갈 수 있는 사설 클라이밍장 외에도 사·군에서 운영하는 야외 혹은 실내 암벽장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모임 앱을 통해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



MUST HAVE ITEM

등산과 마라톤의 특성을 고스란히 딴 트레일러닝은 준비물 또한 세심히 갖춰야 한다. 야외 스포츠를 하는 데 필수적인 비상식량, 여벌의 옷, 물 등을 담은 백팩 형태의 러닝 백을 메고 달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러닝하는 기본, 발목 토티도 가급적 작용하는 것이 좋다.



## 숲을 달려, 트레일러닝

### LEVEL UP



### LEVEL UP



트레일러닝은 시골길과 산길을 뜻하는 ‘트레일(trail)’과 ‘달리다(running)’의 뜻이 섞인 합성어다. 이를 그대로 포장된 아스팔트나 트랙이 아닌 산이나 초원, 숲길 등 자연 그대로의 길을 달리는 운동이다. 2000년대 들어 산악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러너들의 주목을 받은 트레일러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내 헬스장에 대한 이용 제한이 생기며 다시금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며 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악스트림 스포츠에서도 운동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처음 트레일러닝에 입문하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코스를 찾아 익숙해질 때까지 길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비가 온 뒤 웅푹 파진 지형, 달리는 동안 쉽게 들어오지 않는 작은 장애물(돌, 나뭇가지)도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깊어  
가는  
가을,  
  
무르  
익는  
우울?

50여 일의 장마와 함께한 여름이 지나가고,  
성큼 가을이 다가왔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마음속에 여유 한 절이 드는가 싶다가도,  
새 계절이 마냥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갑자기 기분이 뒤풀어지고, 기운이 탁 빠지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경우다.  
'가을을 탄는 것'이라 여기고 시간이 흐르기  
만을 기다리면 되는 걸까? 뇌의 사고회로를  
파악하면 우울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글. 양은우 <당신의 뇌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저자



# 고개를 들어 햇빛을 보자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면 누구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분 변화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유 모를 피로와 집중력 저하, 긴장과 초조, 수면과 다와 무기력 등이 지속되면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가장 의심되는 것은 일조량 저하에 따른 세로토닌의 감소다. 일조량이 줄어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이러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자연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의지력과 활동의욕을 높여 기분을 명랑하게 만들어주고 적정수준보다 부족할 경우 기분을 가라앉게 만든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의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이 잘 오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호르몬이므로 우리 수면의 질을 좌우하기도 한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 우울증을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 우울감이 자칫 일시적 현상을 넘어 만성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 한 번 빠지면 위험한 우울의 하강나선

우율증은 생각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전두엽의 앞쪽 부위)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균형이 생길 때 일어난다. 이성적 사고의 중요라고 하는  
전전두엽과, 기쁨, 슬픔,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변연계 사이에는 고속도로처럼 연결된 신경다발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부위의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전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두-변연계  
사이의 교통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변연계의 감정상태를  
전전두엽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성적  
통제력을 잃게 된다.

이성적 통제력을 잃은 뇌가 한 번 우울에 빠져들면 감정이  
완전한 하강나선을 그리면서 더 깊은 우울증의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 우울증은 불안과 걱정을 부르고,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수면을 방해하며, 수면의 질 저하는 우울증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 즉,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깊어지기 전에  
들려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계절성 우울증으로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주목해보자.



#감정을 예리하게 분류하라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세분화할 것. ‘기분 나쁘다’는 뭉툭한 감정으로 현재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두렵다’, ‘초조하다’, ‘짜증난다’ 등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이름 붙이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변연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는데, 이에 이름을 붙여 의식의 흐름을 이성의 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전두엽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감정상태가 변연계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정을 부정하라

부정적 사고가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반박한 후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운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완전히 경계하고 금지해야 할 단어와  
생각들도 있다. '항상', '언제나', '절대', '아무도' 등의  
부정적인 단어는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잘못된 상황에 대해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지레짐작하지 않으며, 상대를  
낙인찍지 않도록 경계하자.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라

전전두엽의 역할 중 하나는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만들수록 써 놓은 주도권이 변연계보다 전전두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일을 반복하면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우울증과 무기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소한 결정일수록 접근하기 쉽다. 오늘의 점심 메뉴, 청소 순서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성취해 보도록 한다.

사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운동이다. 격렬한 운동은 스트레스 대응 수준을 높이고 두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야외운동일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 기분이 쾌활해지고 밤에도 잠을 잘 이룰 수 있다. 문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운동에 나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대우건설인 心-Care

##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

서울과 경기 지역 집단감염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또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제2의  
팬데믹 조짐에 다들 불안감이  
팽배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며 우울감이나 불안감, 무기력증을 겪는 즉, '코로나블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건강 상담 등을 위해 '코로나19 심리방역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心-Care 상담센터에서 코로나블루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소가 높아짐에 따라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心-Care 상담센터에서는 마음 들여다보기, 원하는 목표 탐색하기, 문제 바로보기 등 상담사와의 이야기를 통해 통합적 마음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마음건강평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직장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직장인의 마음 건강과 생활 습관, 직장 건강을 평가 하는 것으로, 90% 이상이 대면 상담이지만 비대면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현장 근무자나 자가격리 등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담자의 환경에 맞는 PCL-N 모바일로 문진을 진행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실을 이용하는 내담자의 정보는 회사에 공유되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병원진료와는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니 심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心-Care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66  
해외 현장에 있는  
가족 걱정에 우울했는데,  
상담하며 위로  
받았어요.  
99

해외 현장 근무자 가족 B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상태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외부활동이 제한된 채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더 심해지는 기분이었죠. 해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이 걱정되다 보니 이번에 휴가를 올 수 있을까, 언제쯤 귀국하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회사 소식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나 이번 심리지원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혹시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66  
마음건강평가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됐어요.  
99

국내 현장 근무자 A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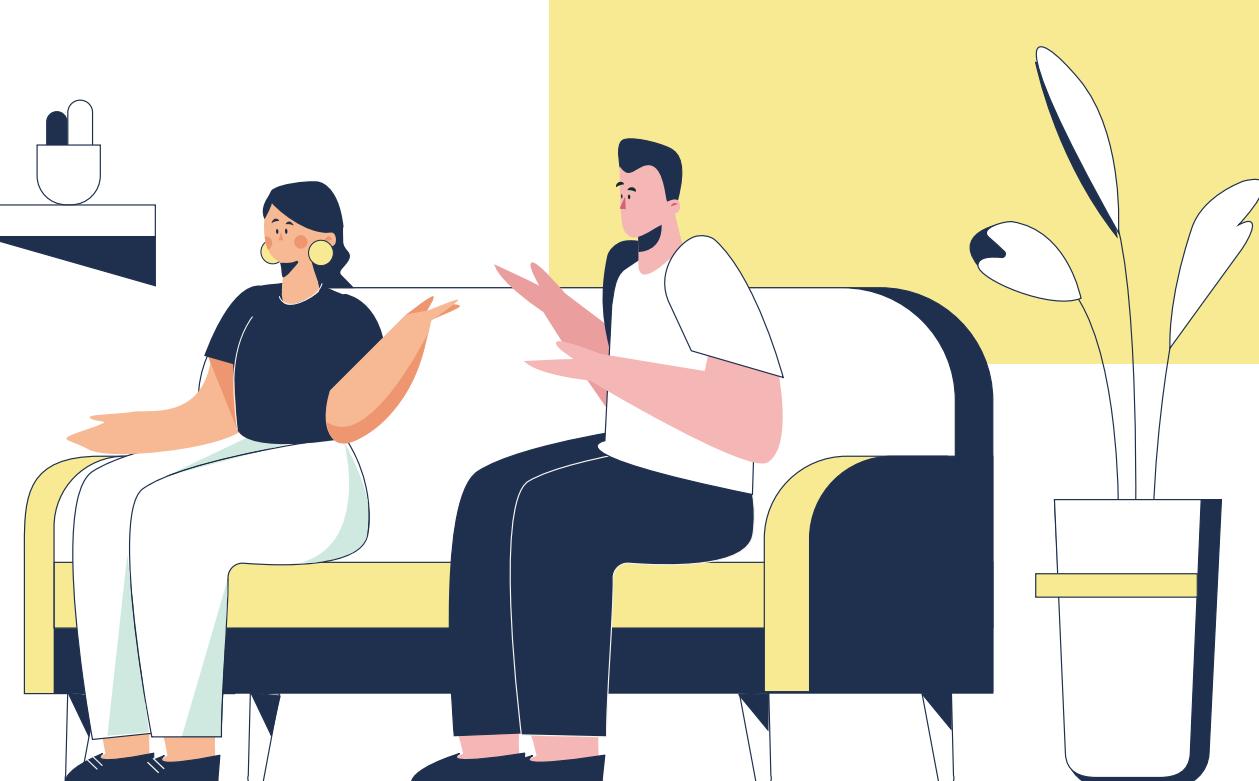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항상 마음이 불안하던 시기에 마음건강평가 도움을 받게 됐어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지내보려 합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방향에 따라 미래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이 상담사

- 임상심리사 전문가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
-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스스로 대처를 잘해오던 분들도 외부 요인이나 내부의 스트레스로 마음 치유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 心-Care 상담센터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나만의 자가 치유 방법을 다시 살피시거나, 시도해보지 않았던 해결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평소에 잦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혹은 코로나19로 일상을 지켜내기가 벅거우시다면 저희 센터를 찾아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 보자구요.



## UNTACT 1

# ‘언택트 추석’ 보내기

##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해요

부모님 뵐려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량 행렬, 성묘에 나서는 식구들의 단란한 모습, 또 언제 볼지 모를 친인척들을 한 자리에 만나는 날, 추석이다. 그립고도 기다리던 명절이지만 올해 추석은 좀 특별하다.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 이커마스 강국 대한민국 활용법 마음을 다해 ‘주문’합니다, 온라인 장보기

추석하면 가장 먼저 차례상이 떠오른다. 조상에 대한 공덕을 기리는 상차림에는 좌반우강, 동두서미, 어동육서 등 구성되는 음식과 놓는 순서마저도 엄숙하다. 이처럼 예의와 격식을 갖춘 추석 차례상은 한편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의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IT강국이자 이커마스(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가 활성화된 나라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해 비대면 접촉이 장려되는 바, 올해 추석 차례 음식은 이커마스를 이용한 장보기를 해보면 어떨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할 농작물의 판로가 막히게 됐다. 이에 시작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우리 농가도 살리고 정성을 다해 기른 우수 농작물도 받아볼 수 있는 뜻깊은 사업으로, 온라인 농협몰([www.nonghyupmall.com](http://www.nonghyupmall.com))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마켓컬리([www.kurly.com](http://www.kurly.com))는 자체적인 기준으로 엄선한 전국의 친환경, 신선 제품과 함께 유명 음식점의 식품, 해외 식료품까지 다채롭게 경험해볼 수 있다.



## UNTACT 2



### 우리 조카 더 멋있어졌네! 더욱 반갑게, 영상으로 만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딸이 자식을 낳았으니 부모 마음은 하늘을 날 듯 기쁘다. 아장아장 걸음을 뗀 손주를 만날 생각에 잠까지 설쳤지만 연초에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추석에도 이 만남은 쉽게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각 지역에 흩어진 가족이 꼭 한 장소에 모여야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이용해보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자녀가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한다. 부모님들은 영상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추석 전에도 몇 번의 연습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후 추석에 음식을 준비하거나 귀여운 손주와 함께 부모님에게 절하는 장면 등을 영상으로 전하며,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랜다. 어디 명절에만 국한될까. 평소에도 영상 통화로 자주 안부를 물자.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큰 명절을 맞이한 홍콩에서는 지난 4월 청명절에 공공묘지에서 성묘하는 방문객 수를 그룹별 4인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중국에서는 일부 공동묘지에 무료로 묘를 돌보는 서비스를 진행하여 성묘를 할 수 없는 자녀를 대신하고, 대리 별초를 하는 서비스도 있어 화제를 모았다. 국내에서는 인천에서 첫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천시립공단 인천가족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 성묘 및 차례 서비스를 진행한다.



## UNTACT 3



### 대세는 언택트 여행 연휴 보내기 좋은 ‘여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Un+Contact)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른 여행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 관광공사에서는 전국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발표했다. 경기 평택 바람새마을 소풍정원, 경북 영덕 벌영리 메타세콰이어길, 대전 황밭수목원, 부산 황령산, 서울 몽촌토성, 인천 교동도, 제주 고슬리 숲길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 여행 및 가족 단위 테마 관광지를 선정하여 자체 입장객 수 제한을 통해 거리두기 여행의 기준 요건을 정해두었으니 황금연휴,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면 참고하자.

**서울 몽촌토성** – 한성백제시대의 중요한 성곽 가운데 하나인 몽촌토성은 전체 둘레 약 2.7km로 올림픽공원 내 자리한다. 토성 내부의 몽촌역사관에서는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 당시 발견된 유물도 만나볼 수 있다.

**부산 대대포해수욕장** – 백사장의 면적이 5만m<sup>2</sup>에 이르는 대대포해수욕장을 유유자적 걷는다. 평균 수온 21.6°C, 수심 1.5m로 아이들과 함께 안락한 휴가를 보내기 좋으며,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울산 대운산 치유의 숲** – 물소리, 새소리, 나무의 피톤치드, 흙내음 등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즐진하는 숲의 치유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복지시설. 어린이, 가족, 임산부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2단계 LNG 패키지 건설공사 수주**  
회사는 지난 8월 31일,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2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사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울산 북항 내에 215,000㎘ 용량의 LNG 탱크 1기와 연간 약 100만 톤 용량의 기화송출설비를 포함한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단계 공사에 이어 이번 2단계 공사도 수주하며 국내 LNG 플랜트 분야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 홍콩 판링 우회도로 공사 수주

회사는 지난 8월, 홍콩 토목개발부가 발주한 판링 우회도로 공사(Fanling Bypass Eastern Section)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홍콩의 판링(Fanling) 신도시와 기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고가도로 990m, 지하도로 490m, 기존 도로 연결공사, 방음벽 공사 등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총 3개의 패키지 중 2번째 패키지다. 회사는 착공 후 59개월 동안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대구 효목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7월 31일, 회사는 대구 효목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동구 효목동 430-4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16층의 아파트 13개 동, 총 7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 대구 내당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7월 31일, 회사는 대구 내당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 868-1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3개 동, 총 2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CFVS) 해체공사 수주**  
지난 7월 27일,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CFVS) 해체공사를 수주했다.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내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 설비 및 건물 해체, 사용 후 연료저장조 차수설비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는 6개월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난 7월 31일, 회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강북구 석관동까지의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IC 4개소, 영업소 2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회사는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30년간 운영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난 8월 4일, 회사는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지구 18블록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16층, 총 972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수주**  
지난 8월 13일, 회사는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의 지하차도 1.4km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착공 후 54개월 동안 비주간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3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난 8월 13일, 회사는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3단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1226번지 일원 문현금융단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5층~지상 45층의 사무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 순천 덕암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7월 31일, 회사는 순천 덕암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수주했다.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42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4층~지상 42층의 아파트 5개동, 총 7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 고덕센트럴푸르지오현장 준공

지난 8월 20일, 고덕센트럴푸르지오현장이 강동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5층~지상 36층, 아파트 6,656세대 및 오피스텔 127실, 5,154평 규모의 상가를 건설했다.



#### 시화해양레저공원클럽하우스현장 준공

지난 8월 21일 시화해양레저공원클럽하우스현장이 시흥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시흥시 소재 시화 MTV 내 거북섬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했다.



####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지난 8월 15일 개최된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0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4층~지상 37개 층, 14개 동의 아파트 1,646세대 및 오피스텔 36실을 건설할 예정이다.



####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현장 준공

지난 7월 31일,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현장이 무안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택지개발지구 34BL, 35BL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18개 동, 총 1,5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했다.



####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 주거서비스 최우수 등급 단지 인증 획득

지난 7월 20일,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서비스 본인증 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했다.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는 회사에서 공급한 첫 번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2018년 2월 입주를 시작하여, 임차인들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사업 진출

회사는 7월 28일, 신사업 벤류체인 확장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인 '휴맥스EV'에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회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생태 구축 등 스마트에너지 산업분야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대우건설인> 봉투가 바뀌었어요!  
100% 생분해 되는 친환경 비닐 백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1등  
LG전자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



오진수(필리핀할루어댐PJ 오석태 차장)  
대곡소사복선전철3,4공구현장 이아기(을)  
보고,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는 터널 시공,  
민원, 안전문제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장님들 말씀을 보고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 생각도 났고요.  
'한국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외 근로자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반년을  
못 만나고 있는 저희 가족처럼,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한 근로자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2등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



해외토목사업1팀 정인웅 사원  
'Natural Nobility'를 바탕으로 한  
푸르지오의 새 광고를 처음 보고 '잘 만들었다',  
'기억에 남는 CF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 푸르지오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근처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하는 푸르지오가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인정(인도비하르교령PJ 견창수 부장)  
'정대우로드' 칼럼을 보고 굉장히 이색적인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에도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도 인상적이었고요. 한국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K-POP, 태권도뿐 아니라  
역사까지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사보를 읽으면서 생활, 건강  
그리고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3등  
기프티콘 2만 원 상당



화서역파크푸르지오현장 남동훈 과장  
'비움의 미학' 칼럼이 좋았어요! 피로하고  
지칠 때 명상을 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고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더군다나 TV에서  
보고 궁금했던 싱잉볼이 나와서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어지러운 이 시기에 딱 알맞은  
칼럼이었어요! 우리 모두 잘 이겨내 봅시다.  
파이팅!

공정설계팀 이정민 대리  
지상파보다 구독형 서비스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면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구독형 OTT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지금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이전에 체험해봤던 웃차  
이외에 다른 OTT 서비스의 장점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퇴근 후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주택건축사업1팀 정성태 부장  
'Theme poll' 칼럼 '환상의 짹꿍 혹은 환상의  
쿵짝' 편을 보고 몰랐던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 자신을 뒤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팀워크를  
복돋우는 미드필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02-2288-3297



###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잔 쪽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 이번 호 선물

- 1등-1명 JBL 블루투스 스피커
-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 3등-3명 기프티콘 2만 원 상당



# 회의가 많으면 업무가 산으로 간다

: 꼭 필요한 회의만 빠르게 끝냅시다



대우건설



# 가지 많은 보고서 야근 잘 날 없다.

: 같은 내용 다른 구성의 보고서는 지양해 주세요



대우건설